

# ‘희망의 빛, 함께하는 평화’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 조직위원회(위원장 김성재·유인학)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빛가람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일원에서 2022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를 개최한다.

‘희망의 빛, 함께하는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7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한전KDN 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개·폐막작을 포함한 10개국 30여 편의 다양한 영화들이 소개될 예정이다.

개막식과 함께 올해 10회를 맞이한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수상식도 열린다.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은 문화예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인류의 평화공존과 인권신장에 기여한 작품이나 감독, 영화·예술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10회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본상 수상자로는 세계 시장에 한류 붐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한국 영화 발전에 공헌이 큰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위원장을 선정했다.

심사를 맡은 백학순 심사위원장(현 김대중문화재단 이사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기념하고 그 평화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영화 발전 및 국제 영화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 김 위원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부산영화제를 오늘

## ●2022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7-9일 빛가람혁신도시



### 제10회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에 김동호 위원장 선정 개막작 ‘페르시아어 수업’...10개국 30여편 영화 선배

날 아시아의 대표적인 영화제로 만든 공로가 크고 한국 영화 세계화에 이바지한 영화 외교관이다.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특별상 수상자는 이란의 여배우 타라네 알리두스티와 행가메 가지아니가 선정됐다.

이란 국민배우 타라네 알리두스티는 자신의 공식 SNS에 허접을 벗은 모습

을 공개하고 ‘여성, 생명, 자유’라고 쓰인 종이를 두 손에 들고 반 정부 시위에 연대의 뜻을 표시했다.

또 배우 가지아니는 자신의 공식 SNS에 테헤란 거리에서 허접을 쓰지 않은 채 긴 생머리를 뒤로 묶는 영상을 올렸다. 허접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사흘 만에 사망한 마흐사

아미니(22)에게 연대를 표시한 것이다.

두 배우의 행보는 인간 삶의 본질이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상생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생명과 인권을 중시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란 시민에 대한 지지와 연대의 의미다.

그간 김대중평화영화상은 이란의 세계적인 거장 반체제 감독, 자파르 파나히 감독, 중국 4세대 대표감독 시에페이 감독, 프랑스 거장 로랑 캄데 감독, 한국의 정지영 감독과 김동원 감독, 추상미 감독, 일본의 가와세 나옴 감독, 영국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켄 로치 감독 등이 선정된 바 있다.

개막작으로 선정된 ‘페르시아어 수업’은 우크라이나 영화감독 바딤 피얼만 감독의 작품이다. 페르시아어를 배우는 독일군 장교와 살기 위해 페르시아어를 가르치는 유대인의 이야기로, 우크라이나 평화를 염원하는 영화다. 오는 15일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다.

폐막작은 스웨덴 나탄 그로스만 감독의 작품 ‘그레타 툰베리’다. 세계적인 기후 행동의 아이콘, 그레타 툰베리가 기후 정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을 소개하는 다큐 영화로 탄소 중립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고 지구를 구하자는 의미에서 폐막작으로 선정했다. /최명진기자

##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힐링’



### 새해맞이 ‘보배섬 국악나들이’ 떠나볼까

남도국악원, 신착순 집수...쌍계사 탐방·천연염색체험 등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2023 ‘새해맞이 보배섬 국악나들이’를 운영한다.

‘우리 소리와 함께하는 힐링’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체험은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이 천혜의 자연이 어우러진 진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이번 체험행사에서는 진도의 천년고찰 ‘쌍계사’를 방문하며 전문 문화해설사와 함께 소치 허련선생의 생가인 ‘운림산방’을 탐방한다.

또한 남도전통미술관에서의 천연염색체험과 함께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

주단의 특별공연을 즐길 수 있다. 아울러 서화 체험을 통해 부채를 만들어 보고 만든 부채를 활용해 남도민요 한가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펼쳐진다.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2022년 임인년을 보내고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기 위해 세방낭조와 진도 오봉산을 방문한다.

체험신청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을 통해 오는 23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신청순 80명이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남도국악원 장악과(061-540-4038)와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최명진기자

## 예술로 기록하는 암태소작항쟁 100년의 역사

### 내년말까지 신안(구)암태농협창고서 전시

2023년 암태소작항쟁 100주년을 맞아 서용선 작가와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마련됐다.

신안(구)암태농협창고(암태면 단고리 99-1·사진)에서 내년 12월까지 열리는 ‘암태소작항쟁 100년의 역사를 담

다’ 전시다. 암태도소작항쟁은 1923년 8월부터 1924년 8월까지 신안군 암태도 소작농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농민항쟁이다. 1년에 걸쳐 전개된 소작농민항쟁은 일제강점기의 식민상황과 격동기 이데올로

기와 맞물려 국제적 연대를 이루며 전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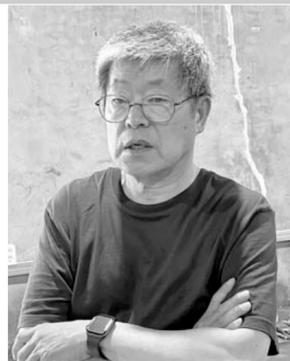
암태도 소작인들은 지주의 높은 세금과 소작료의 부당함을 시정하고자 암태소작인회를 조직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암태도의 식민상황과 지주를 비호하는 일제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집단행동과 농성을 이어갔다.

암태도 기동마을에서 시작된 소작항쟁은 소작농들뿐 아니라 암태청년회와 암태부인회까지 참여하는 등 암태도 전 주민들이 참여해 저항한 민중항쟁이다.

암태에서 시작된 농민항쟁은 주민들이 배를 타고 목포경찰서와 법원으로 달려가 그 부당함을 알리는 시위농성과 단식투쟁까지 이르렀고, 시민들이 연대해 점점 세가 커져 1년간 지속됐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예술가는 사람과 역사를 기반으로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하고 있는 서용선 작가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신안 일대를 답사한 후 암태농협창고에서 작업을 시작했



서용선작가

으며, ‘암태소작항쟁 100년’을 기념하는 공간설치 작업을 추진했다.

작가는 암태농협창고 내부부를 활용, 암태도 소작쟁의 전개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형상화해 100년의 역사를 예술공간으로 표현한다.

(구)암태농협창고는 인근 마을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각자의 경험으로 기억된 ‘암태소작항쟁’을 고증하고 토론하는 마을 역사 사랑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명진기자

## ‘육아가 어려운 아빠들 여기 모여라’

내일 광주여성가족재단 ‘아빠 힐링캠프’ 개최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아빠들의 힐링캠프가 펼쳐진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오는 7일 광산구 큰빛자연생태유치원에서 ‘아빠 힐링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시리즈 일환으로 육아를 하고 있는 가정의 40여명 아빠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의 기질과 자신의 장단점을 찾아보고 나의 육아 태도를 현실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이다.

자유토론을 통해 육아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또한 목공 DIY 체험을 통해 자녀를 위한 장난감을 만들어보는 체험 시간도 마련됐다.

김경래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아빠 힐링캠프가 아빠와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성평등 양육 가치관 확산 및 아빠 육아 참여의 활



성화 방안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2-222-1279. /최명진기자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